

## 9월 모임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말씀읽기 왕하 5:9-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심리학 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이해>라는 책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 표현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열등감을 감추고자 우월감을 드러낸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말씀나누기 1**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겉은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화려한 갑옷 안쪽에 감추고 싶은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9-14절).

- 1)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갈 때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9절)
- 2)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어 나아만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0절)
- 3)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의 반응은 어떠했고,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

**2**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해 생명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왕상 18, 19:2절).

- 1) 이세벨의 협박을 듣게 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상 19:3-4절)
- 2) 엘리야는 자신이 그린 그림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되자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상 19:10, 14절)
- 3) 자신만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왕상 19:18)
- 4)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부르셔서 왜 강한 폭풍 바람과 지진을 보여주셨고,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왕상 19:11-12절)

### 적용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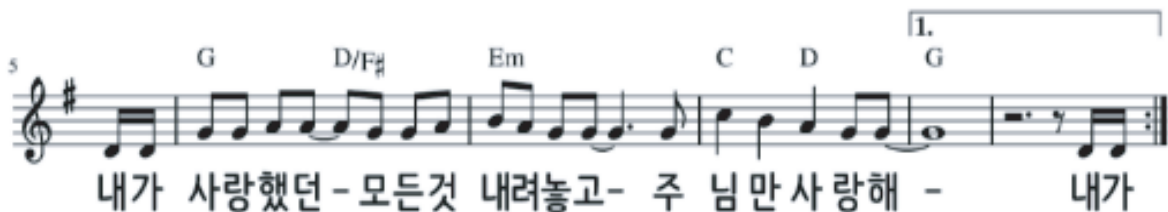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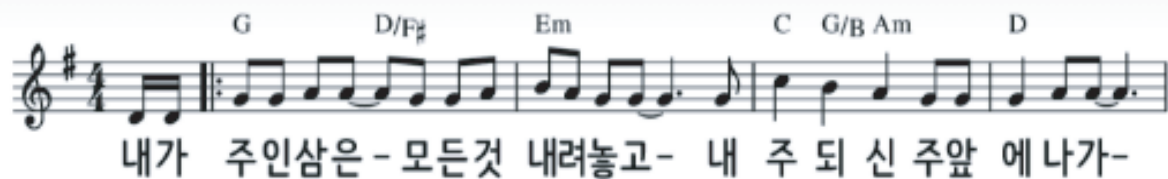
- 1)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솔직한 고백으로 나아가았던 경험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 2)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과 너무 달랐기에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림을 깨뜨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그림이 깨어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일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시는 그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 3)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믿음의 고백,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내가 그린 그림인지, 하나님이 그린 그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으로 살고자 노력하는지 나눠봅시다.

###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1. 나의 생각, 열정, 계획으로 인생을 그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삶과 사역을 그리게 하소서.
2.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분별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인랜드 교회 환우들이 병중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 내가 주인 삼은

전승연



000000

